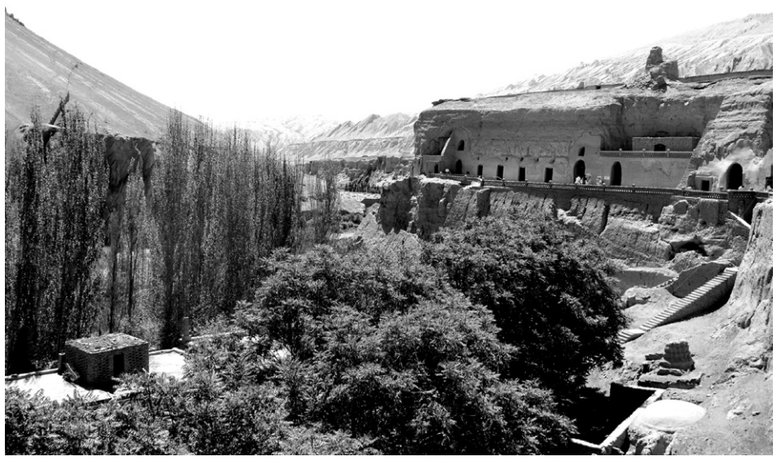
중앙아시아 불교 현장 탐사 활발

고려대 한국사硏 7월 섬서사범대와 실크로드 조사
금강대 불문硏 8월 HK사업 일환 돈황석굴 조사
동국대 불문硏 중점 연구지원 사업서 교류과정 조명


고려대 한국사 연구소의 실크로드 현지 탐사가 시작된 베재클리프 사원의 천불동

1000년 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구법을 위해 험난한 길을 걸었던 한국의 스님들이 있었다. 이들의 품에는 단지 불경뿐만이 아닌 한국의 문화가 있었다. 이들이 걸은 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 동서통상로(東西通商路)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불교학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소장 정태헌)는 7월 30일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일간의 실크로드 현지조사를 완료했다.

고려대 조사단은 중국 우루무치 투루판의 베제클리프 천불동을 시작으로 교하고성 인근 아얼호 천불동, 슨금구석굴, 토욕구석굴, 바이시하얼 천불동 등을 정밀 조사하고, 특별 허가 지역인 잉판의 누란고성과 미란고성에 대한 전면 현지조사를 최초로 병행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사막에 묻힌 라와크 불교사원 유적지를 답사하고 서역 남로의 요충지였던 호탄 지역을 탐사했다. 공동 연구기관인 섬서사범대학에서 공동 연찬을 통해 조사 분석을 진행했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올해 3월 시작한 연구사업은 현지조사 외에 문헌조사도 병행된다. 법현의 〈법현전(法顯傳)〉, 현장(玄奘) 〈대당서역기〉, 혜초 〈왕오천축국전〉 의 번역 오류 검토작업이 진행된다. 한국사연구소는 10월 12~14일 학술세미나를 통해 중간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는 12월 진행된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정산 스님(경국사 주지)은 "우즈베키스탄 함자대학, 중국 서북민족연구소, 실크로드연구소, 북경대 종교연구소 등과 교류확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9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도 2011년부터 우즈베키스탄학술원 예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카라테파 유적 발굴 조사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석굴, 지상 건물지, 탑으로 이뤄진 초기 불교사원의 가람 구조가 발표돼 학계를 놀라게 했다. 카라테파 유적은 인도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한국으로 이어진 전파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카라테파 조사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남부에서 분포현황을 조사하며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실크로드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불교계에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중국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소와 교류협정을 맺고 실크로드 지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를 주제로 한 HK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이 연구에서 불교문화연구소는 16박 17일 동안 실크로드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금강대는 8월 중 2차 실크로드 현지조사를 돈황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도 2005년 12월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일환으로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연구' 2012년부터 3단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단계 '아시아 불교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에서는 동북아 외 다른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불교문화가 연구 조사됐으며 제3단계 '아시아 불교문화 교류와 한국불교의 현대적 모색'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불교문화 교류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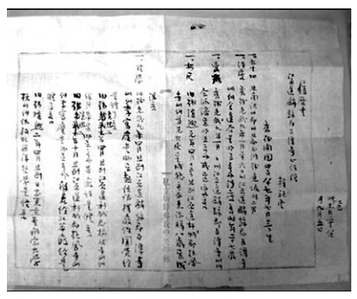
한지연 금강대 HK교수는 "실크로드 지역은 불교의 동방 전래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와 문화의 해외 전파 또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국내서는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라며 실크로드 지역 연구를 통해 역사, 철학, 문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만해 스님 명진학교 단기과 졸업 의혹

한상길 교수, 불교평론 학술세미나서 친필이력서 공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7월 27일 만해학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이동인과 만해: 근대불교의 개화(開化)와 유신(維新)'에서 연구논문에서 만해의 친필이력서를 소개했다. 만해의 친필이력서는 2009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으나 연구논문을 통해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해 스님의 중앙학림 친필이력서

한 교수는 "이력서를 살펴보면 1918년 12월 사립조선불교 중앙학림(동국대의 전신) 강사에 임용되며 제출한 이력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력서에는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주승(住僧)' 등 만해 스님의 이름과 생일, 출생지, 득도, 수계(受戒), 안거(安居), 수학(修學), 경력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한 교수는 이날 학회에서 "기존 학계에는 만해가 1906년 초에 근대학문을 배우고자 신식학교인 명진학교의 보조과 단기과정을 졸업했다는 것이 통설이었는데 만해가 직접 작성한 친필 이력서에는 명진학교 입학 경력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명진학교 입학이 사실이라면 중앙학림의 전신이 명진학교였으므로 중앙학림에 강사로 부임하기 위한 이력서에 그 입학 경력을 적는 게 상식일 텐데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 연구논문에서 조선 말기 승려 이동인과 만해의 삶과 사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근대의 격동기에 등장한 두 사람은 조선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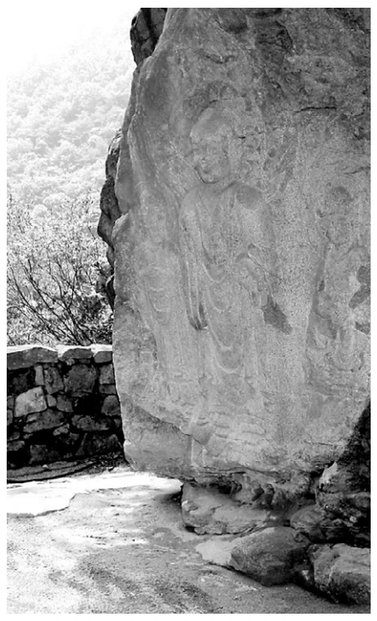
문화재 누림 32선 중 불교문화재 13곳

문화재청, 가족 수학여행지 추천 공개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최근 교과서 속의 문화재와 역사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문화재 누림 가족 수학여행지 32선'을 선정 · 발표했다.

가족과 함께 전국 시도별 주요 문화재를 여행할 수 있는 일정으로, 강화의 '단군왕검에서 근대 유적까지 역사가 숨 쉬는 섬 여행' 등 문화유산 해설사 등 70여 명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추천한 32곳이 소개됐다.

이중 불교관련 문화유산은 △강화 전등사-광성보 △여주 신륵사-세종영릉 △평창 월정사-상원사 △충주 덕주사 마애불-미륵리 사지 석불 △부여 정림사지-고란사 △서산 개심사-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부안 내소사 △익산 미륵사지 석탑 △순천 선암사 △구례 화엄사 △영주 부석사 △경주 석굴암-불국사-감은사지 △부산 태종대-범어사 등 13곳이 이름을 올렸다.


개심사와 함께 추천받은 서산마애여래삼존불

문화재청은 "이번 선정한 가족 수학여행지 32선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문화재 누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정지 32곳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재된 '문화유산을 만나는 9가지 특별한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삶과 죽음 통해 생명 공존 탐구

제1회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8월 11일 '삶, 죽음, 공존' 주제로
노르웨이 · 대만 등 5개국 학자 발표
제35기 호스피스교육 수료식도 열려

"21세기 우리는 스스로 죽고 죽이고 나만 살면 된다는 초 이기주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명 경시풍조를 세계 5개국 석학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인간과 뭇 생명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이사장 능행)은 8월 11일 12시 서울대 수의과대학 스코필드 강당에서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및 생명포럼을 개최한다.

'삶, 죽음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제1섹션 '삶, 죽음' △제2섹션 '공존을 위하여' △제3섹션 종합토론 △특별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섹션에서는 존 두얼리 캐나다 칼튼대 교수, 장익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치앙흉 싸이 대만 나우아대 교수가 발표한다.

제2섹션에서는 헤이드 레간저 크록스태드 노르웨이 오솔로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잡 코즈함사담 인도 즈나나디파 디드야피스 대 총장, 아키라 고토 일본 난잔대 교수가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김재영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위덕대 불교대학원, 정토마을 자재병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특별행사로 한국불교호스피스 협회의 제35기 불교전문호스피스교육 수료식도 봉행된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이사장 능행 스님은 "5개국 석학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생명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외규장각 의궤 대구박물관 전시

외규장각 의궤가 대구 지역에 선보인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은 9월 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외규장각 의궤와 조선왕실 혼례이야기'를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여러 가지 의례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한 책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를 통해 왕실 혼례 행렬의 전체모습을 재현했다.

전시는 1부 '외규장각 의궤', 2부 '조선왕실 혼례이야기'로 나눠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왕실 행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매주 일요일 수첩만들기, 부채만들기, 일월오봉병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노덕현 기자